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GS에너지, SK에너지, SK에스온,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 7개사가 한국-말레이시아 간 탄소 포집-운송-저장사업에 나선다. 각 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국내 탄소 모아 말레이에 저장...K드림팀 뭉쳤다

롯데케미칼 등 주요기업 6곳 참여
말레이 국영 에너지기업과 협업
‘포집-이송-저장 밸류체인’ 개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드라이브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의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와 협업체를 초월한 CCS(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나선다.

롯데케미칼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GS에너지, SK에너지, SK에스온,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 7개사는 한국-말레이시아 간 탄소 포집-운송-저장사업인 세퍼드CCS 프로젝트 개발 공동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국내 허브에 집결시킨 후 말레이시아로 이송, 저장하는 사업이다. 참여사들은 말레이시

아 현지 저장소 탐색부터 국내 탄소의 포집-이송-저장에 이르는 CCS 밸류체인을의 전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참여사들은 먼저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본격 사업개발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시아 최초 CCS 허브 프로젝트

이번 사업은 아시아 최초의 CCS 허브 프로젝트로 밸류체인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업별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2030년 이전부터 실제적인 탄소 포집과 저장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개발주관 및 허브는 삼성엔지니어링, 탄소포집 및 허브는 롯데케미칼, GS에너지, SK에너지가 담당한다. 이송은 삼성중공업, 저장소 탐색 및 선정과 운영은 SK에스온과 페트로나스가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허브를 통해 여러 기

업이 배출한 탄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처리, 이송 등에 있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 탄소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참여사들은 향후 국내 다른 탄소배출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사업 확장도 모색할 계획이다.

국내 탄소저장공간의 부족으로 해외저장소 확보가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규모의 저장 용량과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다.

롯데케미칼 친환경경영부문장 박민철 상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더불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급변 CCS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에너지 수소신사업개발부문장 이

승훈 상무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CCS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사업기회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에너지 흥정의 에너지넷제로실장은 “CCS는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탈탄소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출원별 탄소 포집 후 함께 저장하는 방식(허브 & 클러스터 방식)이 유럽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포집원-저장소 간 지리적 차이로 인한 국제 선박 이송 및 해외 저장에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포집-이송-저장 등 전 밸류체인에서 국내외 참여사들과 협업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중국에도 ‘EAA’ 공장...아시아로 영토 넓히는 SK지오센트릭

〈고부가 화학소재〉

미국·유럽 이어 신규 생산거점 확보
2900억원 투자, 2025년 상반기 완공

SK지오센트릭이 미국과 유럽에 고부가 화학소재인 에틸렌 아크릴산(EAA) 생산 공장을 확보한 데 이어 중국에도 신규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SK지오센트릭은 중국 화학회사 웨이싱화학과 EAA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 및 렌윈강 쉬웨이 석유화학 단지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과 웨이싱화학은 6대4 비

율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장쑤성 렌윈강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 내 약 6.6만㎡ 부지에 약 2900억 원을 투자해 EAA 생산공장을 짓는다. 2025년 상반기 완공되어 연 4만톤 규모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EAA는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SK지오센트릭을 포함한 글로벌 메이저 화학업체 3~4곳이 전 세계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부가 화학소재다. 고기능성 접합수지의 일종으로 금속과 플라스틱, 종이와 플라스틱 등 이종물질 간 접합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내구성·투명성·접합성이 우수해 멸균

팩, 육류 진공 패키징부터 골프공, 강화유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전극과 막에 사용하는 경우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육류 등 진공포장 활용시 보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수한 접합성능 및 분리용이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물을 높이는 환경소재로 각광받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용도에서 수요창출이 기대된다.

SK지오센트릭은 2017년 미국 다우케미칼로부터 EAA사업을 인수하면서 미국 텍

사스, 스페인 타라고나에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특히 스페인 공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EAA에 나트륨, 이온 등 금속이온을 결합한 화학소재 ‘아이오노머’ 독자 연구 개발 및 생산에 성공하는 등 신규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중국 내 유일한 EAA 생산공장을 통해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수요를 선점하겠다”며 “SK지오센트릭의 기술력과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역량 등을 적극 활용해 고부가 화학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글로벌 친환경 화학 소재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DMI, 수소드론 활용 농어촌 상생 프로젝트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이 지자체와 연계해 수소드론을 활용한 농어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DMI는 제주테크노파크와 농어촌 지역 안전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DMI는 2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을 활용해 ▲휴가철 해수욕장 인명 안전 감시 ▲해안가 환경 모니터링 ▲농어촌 지역 청소년 대상 드론 운용 교육 등을 실시한다. 향후에는 과수원 내 감귤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해 수확량 예측 및 수급 조절을 통해 감귤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DMI 관계자는 “향후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수소드론이 요구조자(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인근 해안 경비대에 연락을 취하는 솔루션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수소드론이 가진 장점들을 활용해 비즈니스의 성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아이템을 개발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10일(수)		
서울 90/30	인천 90/30	춘천 80/30			
 23 30	 23 28	 23 30			
강릉 80/70	대전 90/90	전주 60/90			
 23 29	 25 28	 26 29			
광주 30/60	대구 30/60	부산 30/30			
 26 31	 27 32	 26 31			
창원 30/3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26 32	 28 35				
날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8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